

Sinopec, 100만톤 크래커 합작투자

2010년 완공 예정 Caojing No.2 건설계획 ... SCIP가 1순위 물망

Sinopec이 Caojing 소재 에틸렌 크래커 합작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

Shanghai 인근 Caojing Chemical Park에 들어설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프로젝트의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는 Shanghai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SCIP(Shanghai Chemical Industry Park)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hanghai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인 Shanghai Huayi Group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Huayi는 업스트림 합작보다는 다운스트림 수요처로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에틸렌 크래커는 2007-08년 착공돼 2010년 완공될 예정이며 Caojing 소재 No.2 크래커가 될 예정이다.

Sinopec은 2005년 초 BP 및 Shanghai Petrochemical과 합작으로 27억달러를 투자해 Caojing에 에틸렌 90만톤 콤플렉스(Shanghai Secco)를 완공해 상업가동중에 있다.

한편, PetroChina은 독일 Linde와 노르웨이 Aker Kvaerner를 Dushanzi 소재 에틸렌 크래커 및 PE 플랜트 공사 사업자로 각각 선정했다.

자회사 Dushanzi Petrochemical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를 기반으로 PE 30만톤 플랜트 2기를 포함하며 2005년 9월 착공돼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ker Kvaerner는 PE 플랜트 생산라인에 Univation의 Unipol 공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11/07>